

美 ‘22일째’ 섯다운, 역대 2위 최장...예산안 상원 또 부결

예산안 교착 지속...연방정부 직원들, 급여 끊겨 푸드뱅크 줄 서기도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섯다운’이 22일(현지시간) 22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 최장 섯다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미 의회가 임시예산안 처리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섯다운은 3주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섯다운 국면에서 임시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열두번째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또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전날 오후 6시21분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22시간 이상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섰다.

제프리 의원은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를

섯다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에서 뉴욕주에 정치 기반이 있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자기들 지역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급진 좌파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섯다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섯다운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

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섯다운 사태가 2018년 12월22일부터 이듬해 1월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다.

섯다운으로 인해 급여가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워싱턴DC 등지의 푸드뱅크에 무료 식량을 지급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료품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비영리단

체다.

CNN 방송이 지난 21일 워싱턴DC의 푸드뱅크에서 만난 연방정부 계약직 직원인 서머 커크식은 두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린 끝에 통조림과 건조식품이 담긴 상자를 받았다.

상무부 산하 농촌수출센터의 시장조사 분석가인 커크식은 “다음 주 월세가 나가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받겠다”며 “지금은 품돈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커크처럼 무급 휴직 중이거나 급여 없이 일하고 있는 연방정부 직원은 현재 140만명에 달한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인질 송환후 장례식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니르 이츠하크 묘지에서 열린 인질 탈 하미미 상사의 장례식에서 한 남자가 무릎 옆에서 경례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에 충분한 구호 없었다”...이스라엘 질타

“유엔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 의무

기아를 전쟁수단 삼아선 안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위기가 재앙적 수준으로 전개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국제법이 정한 인도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유엔 최고 법원인 ICJ는 22일(현지시간)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이스라엘이 유엔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지원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올해 1월부터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UNRW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켜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전달을 제한했다.

ICJ는 이스라엘이 UNRWA가 제네바협약상 중립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단체와의 협력을 중단할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스라엘은 UNRWA 직원 1천여명이 하마스와의 연계됐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ICJ는 밝혔다.

오히려 ICJ는 UNRWA가 가자지구 인도주의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UNRWA와 선의로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점령국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유엔 헌장에 명시된 유엔의 면책 특권을 침해했으며, 점령 세력으로서 인도주의 의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의견서를 낭독하면서 “점령국은 점령지 내 모든 인도주의 활동 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결코 안보상 이유를 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시된 증거를 법원이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주민들이 기본적인 물자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 ‘마약 선박’ 8번째 격침...이번엔 태평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마약 선박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어제(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동태평양에서 지정 테러 조직이 운영하고 마약 밀매를 수행 중인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고 적었다. <사진>

이어 “이 선박은 우리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알려진 마약 밀수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고,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공해상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선박에 타고 있던 2명의 마약 테러리스트는 살해됐으며, 미군 병력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한 이번 공격은 미군이 중남미 국가의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



하며 격침한 8번째 사례다.

그간 미군이 선박을 격침한 수역은 모두 카리브해였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해안에 독극물을 들여오려는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 어디서든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도 선박을 격침하는 짧은 동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소형 선박 이바다에서 전진하던 갑자기 폭발한 뒤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

‘노벨상’ 의사카구치 연구팀

‘조절 T세포’ 대량 제작기술 개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사카구치 시몬 일본 오사카대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이 면역 반응 폭주를 억제하는 ‘조절 T세포’ 대량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3일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카구치 연구팀은 대장염이나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세포에서 인공적으로 조절 T세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조절 T세포를 대장염이나 골수 이식 후 합병증 상태의 쥐에 투여하자 증상이 개선됐다.

종전까지는 염증성 세포에서 기능이 다른 조절 T세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졌다.

조절 T세포는 면역계에서 CD25 단백질을 발현해 ‘면역 관용’(immune tolerance)이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면역 관용이란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조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면역 반응이 과열될 때 이를 식혀주는 제동장치인 셈이다.

닛케이에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 등 치료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르면 내년에 미국에서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사카구치 교수는 1995년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의 존재를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